



**OCTOBER 22**  
**2019**  
Volume 79

COLD FILTERED. COLD AGED.  
**COLD INSPIRED.**







TASTE THE FEELING®

Congratulations  
KAGRO International  
on your 60th  
annual board meeting





# timeless TIME CIGARETTE Smooth & Rich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 CONTACT US:

*If you want to add to your profits with our  
NEW 2019 DISTRIBUTOR & RETAIL PROGRAMS!*

Phone: 1-214-299-4202

Fax: 1-214-299-4207

info@ktngusa.com

www.ktngusa.com



## 목 차 (Index)

인사말 / 축하	6 ~ 7
KAGRO 뉴스	8 ~ 18
산업 뉴스	19 ~ 21
경제 뉴스	22 ~ 24
건강 뉴스	27 ~ 2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30

Message and Greeting	6 ~ 7
KAGRO News	8 ~ 18
Industry News	19 ~ 21
Business News	22 ~ 24
Health News	27 ~ 28
Board Members & Sponsors	30

## 제 15 대 집행부 명단

### Kagro International Executive Member & Board of Directors

#### Officers

Washington D.C	회장	이요섭	Lee, Yo Sup
Southern California	대외 수석부회장	김중철	Kim, mike
Delaware	대내 수석부회장	송영석	Song, Mike
Central California	부회장	장중희	Chang, jong hee
Arizona	부회장	최인준	Choe, Calvin
Colorado	부회장	연규산	Yeon, Sean
Harrisburg, PA	부회장	이정희	YI, chong
New York	부회장(총무부)	박광민	Park, kwangmin
Maryland	부회장(섭외부)	김 혁	Kim, Domingo
Washington D.C	부회장(재무부)	김형묵	Kim, Shawn
Colorado	부회장(홍보부)	서천룡	Suh, John
Arkansas	사무총장	이창현	Lee, Chang Heon

#### Auditors

Maryland	감사	김재만	Kim, Jae Man
Philadelphia	감사	이승수	Lee, Seung

#### Board of Directors

Maryland	이사장	송기봉	Song, ki bong
Philadelphia	부이사장	이창희	Lee, Justin
Harrisburg, PA	부이사장	나광열	Na, Kwang yol
Southern California	부이사장	한우태	Han, wootae

#### Advisors

Washington D.C	고문	김기옥	Kim, ki ok
Southern California	고문	김양일	Kim, Yang il
Philadelphia	고문	전기풍	Jeon, Ki Pung
Southern California	고문	김치현	Kim, David H.
New York	고문	구군서	Ku, Andrew
Oregon	고문	김주한	Kim, Ju Han
Maryland	고문	김현주	Kim, David
Delaware	고문	한용웅	Han, Yong wong
New York	고문	허성칠	Heo, Seong C.





## 인사말

높아서 더 푸르게 느껴지는 하늘과 한해의 노력을 수확하는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에 여유를 느끼게 하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어느덧 2019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영업자인 우리 회원들  
에게 그리 밝지 않은 주변 상황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온전히 보상해 주기에는  
많이 인색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항상 강조하듯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여  
러분의 업소를 고객의 요구에 맞춰 변화된 모습으로 개선해 스스로의 경쟁력  
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힘쓰기 바랍니다.

2년의 임기중 3/4을 넘긴 시점에 16대 회장단은 전 첩터에 장학금을 지급하  
였고 개방적인 협회운영의 일환으로 협회의 활동상황이나 계획등을 전회원  
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있으며 전 첩터의 회비납부와 새로운 정관개정을 하였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의 공약  
을 올곧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헌  
신하신 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김주한 당선인에게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협회로 이끌어 가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61차 총회는 고국의 아름다운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한상대회와  
겸해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협회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토의와 비전  
을 서로 나누고 총연과 한상대회의 발전에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사업의  
파트너로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총회 참석기간 동안 여수 밤바다의 매력에 흠뻑 취해 보시고 고국에서의 귀  
중한 추억을 만드시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이요섭





## 인사말

우리 한민족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계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다지고 모국 경제 발전의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열립니다.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인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민족 경제교류의 행사로 우리 총연에서는 정기총회를 한상대회 기간에 여수로 정함으로써 미전국에 지역 대표 대의원이 다같이 참석함으로 한상대회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한상 네트워크에 KAGRO가 참여해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한상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멕시코 칸쿤에서 실시된 총연회장 선거에서 16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앞으로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으로 총연과 지역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후원업체들과 매출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힘들어지는 사업체운영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연 회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총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해 봉사활동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자녀와 커뮤니티의 우수한 학생들을 각 지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연계시켜 계획하고 진행되기를 바라며, 지역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업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16대 회장 당선자  
김주한



## 뉴욕한인식품협 장학금 수여식



△ 뉴욕한인식품협회가 10일 장학금 총 8000달러를 장학생 8명에게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들이 장학생들과 함께 자리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회원 및 종업원 자녀와 탈북자 학생 등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식품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협회는 지난 5월 10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대동연회장에서 '2019년도 식품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적인 우수한 장학생 8명에게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광민 회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합해 함께 성장한지도 어느덧 35년째를 맞았다”며 “규정 강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회원들과 함께 헤쳐 나갔듯 앞으로도 회원업소들, 나아가 한인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김승걸 이사와 박승재 이사에게 공로패를,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민주·11선거구)은 식품협회의 공로를 치하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한 경품추첨 및 공연 등을 즐기며 회원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함께 했다.

## 스티로폼 대체용기 공동구매 앞장서



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맨 오른쪽)회장과 임원들이 7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스티로폼(EPS) 용기를 대체할 친환경 용기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가 공동구매를 통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스티로폼(EPS) 용기와 플라스틱 백(비닐 백) 퇴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6월 13일 플러싱 소재 소나무 식당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친환경 용기를 공동구매, 법규준수와 함께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친환경 용기를 공급하고 있는 ‘L’사와 ‘M’사, ‘I’사 등의 제품과 단가를 꼼꼼히 비교 분석, 조만간 한 회사를 선정,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박광민 회장은 “스티로폼 용기 단속이 시작되면 당장 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매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로폼 용기가 퇴출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 용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적 구매 보다 협회 차원에서 단체로 공동구매 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동구매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회원이 많아야 한다며 임원 이사들이 먼저 솔선수범, 이번 공동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홍규 이사장도 “일부 친환경 용기 경우, 1회용 스티로폼 용기보다 3배 정도 비싸다”며 “플라스틱 컵과 종이 컵,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식판, 컨테이너 등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다양한 친환경 용기를 공동구매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법안(Local Law 142)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스티로폼 용기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하고 있어도 단속되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스티로폼 용기 재고 물량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이달 말까지 매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단속 대상 용기는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코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다. 물건 포장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이나 배달 판매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이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 백(비닐 백) 사용중단에 대해서도 논의, 비용 절감 등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3개월이면 용해되는 특수 백 샘플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플라스틱 백 공동구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경북 공무원들과 간담회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지난 7월 11일 베이사이드 소재 협회 사무실을 해외 연수차 방문한 경상북도 식품위생안전관리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앞줄 가운데) 외 관계자들과 경북 식품위생안전관리 공무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ABC 위생등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회는 이날 뉴욕시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박광민 회장 외 식품협회 관계자들과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상호협력을 다짐하며 상호 이해의 자리를 함께 했다.

## 정기이사회 “정부 규제·단속 적극 대응”



△ 뉴욕한인식품협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협회 이사들이 스티로폼 용기 단속에 따른 친환경 용기 공동구매에 대해 토론했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가 지난 7월 12일 플러싱 소재 금강산 식당에서 ‘제20대 후반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강화되고 있는 정부 규제와 단속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홍규 이사장은 이날 “지난 7월1일 스티로폼 용기 사용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되는데 이어 오는 10월1일 대마성분이 함유된 CBD(칸나비노이드) 드링크 제품에 대한 단속도 시작 된다”며 “날로 강화되고 있는 단속과 관련,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민 회장도 “서류미비자 단속까지 강화되면서 히스패닉계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졌다”고 강조 한 후 “퇴출 명단에 오른 스티로폼 용기와 플라스틱 백 등을 대체할 친환경 용기 공동구매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집행부가 그동안 살림을 잘해 적지 않은 자금을 모았다”며 “멀지않은 시기에 공동창고나 오피스 마련 등 협회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임원이사 야우회를 실시,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 메릴랜드식품협회 장학금 기금모금 골프대회 성황



△ 제 24회 MD한인식품주류협회 장학금기금모금 골프대회 입상자들과 협회 관계자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장 마리오)가 지난 6월 2일 컴퍼스 포인트 골프코스에서 장학금기금모금을 위해 마련한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파사디나의 컴퍼스 포인트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회원과 김동기 총영사를 비롯 후원자, 식품 및 주류업체 관계자 등 2세들의 장학금기금 모금에 마음을 같이하는 130명이 참가해 기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챔피언조와 일반조, 여성조로 나뉘어 치러진 대회에서 지준현 씨가 2오버파 74타로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경품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졌다.

장 마리오 회장은 “다행히 모든 참가자의 라운딩이 끝난



△ 메달리스트 지준현(중앙) 씨와 도민고 김 전회장(왼쪽), 마리오 장 회장

후 폭우가 쏟아져 대회에 차질이 없었다”며 “차세대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에 협조하고 후원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이후 2세대 신입회원 30여명을 영입했다”며 “캐그로는 앞으로 한인 상인뿐만 아니라 인종에 상관없이 업주 및 관계자들로 확대,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그로는 지난 3월 총회에서 이사장 선출 시기에 대한 논란 끝에 올해 말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김재만 이사장이 최근 사임했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신임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 회장단과 상호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범죄 예방·안전 강화 방안 모색



△ 마이클 해리스 볼티모어시경국장과 핀케트 시의원과 미팅을 가진 캐그로 임원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장 마리오)가 강·철도 범죄 및 안전 예방을 위해 볼티모어시 경찰 및 시의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는 지난 6월 20일 볼티모어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마이클 해리스 볼티모어시경국장과 리온 핀케트 시의원과 미팅을 갖고 한인업소 주변의 범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 마리오 회장은 “볼티모어에 강·절도 및 폭력 등 크고 작은 범죄사고가 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 및 경찰, 주류사회와 많은 협력을 통해 한인업소의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재도약을 위한 세대교체 환영



△ 지난달 30일 콜럼비아의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캐그로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장 마리오)가 세대교체를 통한 재도약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콜럼비아의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장 마리오 신임회장은 협회발전과 회원 실익을 위한 사업 등 추진 방안을 밝혔다.

장 회장은 “캐그로가 차세대 한인 1.5-2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지속적인 불황으로 정체돼 있던 협회를 실질적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대교체의 물꼬를 튼 협회가 새로운 회원 영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미래로 도약하는 협회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는 신입회원 자격요건을 한인이거나 주류업주 등 자영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인종에 상관

없이 부동산, 보험, 정부 관련 사업체, 소규모 사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경제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캐그로는 회원의 실질적 이익뿐 아니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겠다”며 “특히 1.5세, 2세 영입에 주력해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회에는 현재 3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선출직인 수석 부회장 등 회장단 및 이사장은 오는 9월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선출 및 인준 절차를 밟는다. 총무는 백경렬 전 부회장이 맡았다.

## 임원, 챕터 회장단과 골프 모임



△ 지난 7월 31일 메릴랜드 소재 Bulle Rock 골프에서 Tito's handmade Vodka의 후원으로 전미 30여명의 회장단과 각 챕터 회장단이 참석해 성황리에 모임을 마쳤다. 저녁은 Live Casino Hotel (Maryland)에서 후원해 화가에애한 시간을 가졌다.



## 시카고한인식품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



△ 시카고 한인식품협회(회장 김세기)가 주관한 제25회 Miller friendship 골프 대회에 참석한 임원 및 관계자들



△ Miller에서 2,000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전달하고 있다.

## 알칸사한인식품협회 골프 대회 및 야유회



제1회 알칸사 한인 식품협회(회장 이창현)는 지난 9월 8일 골프 대회 및 야유회를 통해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더, 협회회원, 한인 등 50여명이 골프 대회로 친목의 시간을 즐겼다.

이번 골프 대회 및 야유회는 One korean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라 장



소 이용료 및 모든 경비를 협회에서 부담했다.

또한 알칸사 지역 주니어 골프 랭킹 1위인 이현서 고등학생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전달했다.

여러 벤더들의 협조로 많은 기념품과 상품을 증정할 수 있었다. Tito's handmade vodka에서 경품으로 골프백과 보드카를 지원했으며, 12월 14일에 열리는 One Korean's 3rd Annual Scholarship Award Banquet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한인들 현혹시키는 푸드스탬프 교육프로그램 가입 주의



최근 식품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푸드스탬프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애틀랜타 한인 식품업계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알칸사의 양 모 씨는 5년이상 푸드스탬프, 즉 SNAP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한인 식품업체 업주이다. 최근 양 씨는 한 방문객으로부터 2019년부터 새로이 개편된 푸드스탬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구심이 생겼다.

식품업체가 '푸드스탬프'라고 알려진 정부 지원 영양 프로그램인 SNAP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업주와 종업원이 USDA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명시된 법과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방문객은 한인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던 사례와 종업원이 교육프로그램에 나와있는 규칙을 어겨 최고 5만9천달러의 벌금과 10년 이상의 SNAP 자격정지를 받게된 사례를 들어가며 업주에게 겁을 먹게 했었다.

이들은 또 한인업주들에게 새로바뀐 2019 SNAP 교육프로그램을 아직 이수하지 않았다면 당장 EBT 카드 결제기 사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가입해 관리를 받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알칸사 한인 식품업협회 이창헌 회장은 몇몇 회원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USDA 측과 통화하는 등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 회장에 의하면 USDA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고작 20분짜리 비디오와 얇은 소책자임이 밝혀졌다.

또한 식품업주는 SNAP 담당 직원이 교육용 비디오나 책자를 보고 숙지했다는 싸인을 받아두기만 하면 된다.

이창헌 회장은 비교적 간단한 이수 절차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안정성만을 강조함으로써 한인 업주들을 현혹시킬 소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입비와 회비의 액수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한인업체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이 회장의 전화를 받은 박수목 애틀랜타 한인 식품협회 사무총장은 애틀랜타에는 아직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영어에 서툴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한인 식품업주들을 노린 사례로 벌금이나 기소 등의 패널티를 물어야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에 현혹돼 엉뚱한 프로그램을 가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 펜실베이니아 케그로 골프대회



△ 중앙 펜실베이니아 케그로 골프대회에 참석한 임원 및 관계자들

## 워싱턴주 한인식품협회 골프대회서 1만불 기금 모아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회장 이기복)가 지난 5월 23일 개최한 골프대회를 통해 장학기금 1만 달러를 모았다. 그로서리협회가 뉴캐슬 골프장에서 개최한 올해 골프대



회에는 144명이 정원이었으나 151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 중가주한인식품협회 2019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성황



△KAGRO주최 2019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에 지역한인 120여명이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몬트레이 지역 한인행사 중 의미가 큰 대회 중 하나인 중가주한미식품상협회(회장 장종희)가 주최한 2019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6월 9일 애플스 시스케이프 GC에서 지역 한인골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장종희 회장은 “여러분의 큰 관심에 감사 드리며 오늘 모금된 기금은 연말 장학금으로 지역 타커뮤니티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응찬 대회장은 “북가주의 여러 단체장 등 많은 분들이 참가해 줘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26년간 지속돼온 장학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은 몬트레이 한국학교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을 진행한 지대현 이사장으로부터 ‘KAGRO의 영

원한 파트너이자 명예대회장’으로 소개된 안상석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은 “정말 좋은 장학 사업을 후원할 수 있게 돼 영광”이란 말로 답사를 했다.

이날 대회에는 COUCH사(버드와이저), 우성 아메리카(처음처럼), 아이코닉 트레이딩사(늘만나김치), 자생한방병원(육공단) 등에서 제품을 후원해 기금 마련에 한몫을 더했다.

## 콜로라도한인식품협회 골프대회 성황리 마쳐



콜로라도 한인 리커협회(회장 윤진기)가 주관하고 밀러쿠어스가 후원하는 ‘2019 KRLAC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 파커의 프라데라 클럽(The Club at Pradera)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총 1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경기 일정 확정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정원이 다 채워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코스였으나, 12번째 홀을 마치고 내린 폭우로 인해 대회가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덴버 시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본 대회에 참석하면서 회원들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 때로는 십년 만에 만나게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0년 동안 꾸준히 만나게 되는 분도 있어서 바쁘게만 살다가 잠시라

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로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리커스토어를 경영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설 골프 클럽이어서 평소에는 올 수 없는 곳이다. 리커협회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고, 여기 나와보니 잘 치는 여성분들도 대거 참여한 것 같아서 배울 점도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갑기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참석을 한 익명의 한 회원은 “골프를 친지 얼마 안 돼서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 필라델피아식품협회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회장 이승수)는 지난 5월 22일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변화하는 위생 규정 및 스몰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인터넷”을 주제로 세미나를 펼쳤다.

앤드 디자인 장석우 대표와 필라시 위생국 브라이언 손 슈퍼바이저가 연사로 나온 이날 세미나에서 장석우 대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페이스 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인터넷을 통한 고객 관리는 큰 사업체의 독점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슈퍼바이저는 “위생검열이 갈수록 엄격해 진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시에서는 이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엄격한 잣대로 인스펙션이 이루어



△필라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슈퍼바이저가 식품위생관련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이미 인스펙터를 증원해 현재 50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필라델피아 시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관련 업소들은 1년에 한 번씩 인스펙션을 받게 될 것이며 인스펙션에 실패할 경우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첫 인스펙션에서 실패할 경우 195달러, 두 번째 실패 시에는 315달러를 납부해야 재인스펙션이 실시되고 4번째 인스펙션에도 실패할 경우 업소를 폐쇄하게 된다.

과거에는 인스펙션을 3번 이상 실패할 경우 코트에 출두해야 했지만 이제는 코트에 출두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4번 이상 실패할 경우 “안정적인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폐쇄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업소가 인스펙션에 실패해서 영업 정지를 당할 경우 업소에 붉은 사선이 그려진 ‘영업 정지(Cease Operation)’ 표지를 부착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영업 정지 표지는 필라시 인허가국(Dept. of License and Inspection)에서만 부착했으며 한번 영업 정지 표지가 부착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영업 재개가 어려워 업주들에게 큰 타격을 준 공포의 표지판으로 작용했다.

위생국에서 부착하는 영업 정지 표시는 부착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돼 함부로 떼지 못하도록 관리되지만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재 인스펙션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제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차기 캐그로 인터내셔널 회장에 김주한 고문 선출



△좌측에서 네번째 이요섭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현회장과 16대를 이끌 김주한 고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총연합회 16대 회장으로 김주한 고문이 선출됐다.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지난 4월 27일 켄쿤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16대 회장 선거를 실시, 각 지역 챗터 대표자들과 총연 임원 및 이사, 고문 등의 투표를 통해 16대 회장에 김주한 고문을 선임 했다.

김주한 고문은 당선 소감을 듣는 자리에서 “모든것을 끌어 안겠다, 총연을 위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포용관용의 마음으로 이끌겠다. 협조와 여러분과 같이 가는 총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잡지와 웹사이트를 연계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0차 총회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 여수에서 세계한상대회 성공적 의지 다져

국내 최대 한민족 경제축제인 2019년 ‘제18차 세계한상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사전 등록을 지난 5월 15일 부터 실시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에서 주최하는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한상들이 한곳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판로 개척과 글로벌 무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해 4월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한상과 지역 경제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상인 리더CEO포럼, 차세대 경제 리더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영비즈니스 리더포럼’ 등 한상네트워크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은 물론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중소기업 IP 경영인 대회’, ‘해외바이어 구매상담회’ 등 국내 주요 경제행사 및 도 차체행사 연계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반 18팀의 ‘대회지원 준비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골자로 한 대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한상과 전남지역 기업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별 및 지역별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또 기업전시회를 구성,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한상 등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전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제17차 인천 한상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극찬한 1사 1청년 운동을 확대한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한상의 국내 청년 채용 확대 등 일자리 관련 행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자체행사 및 국내행사 연계 추진으로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 자체적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일자리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부서 및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100개 기업을 선정, 부스 설치비 지원, 기업 정보 사전 제공 등 ‘맞춤형 기업성과 프로그램’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세계한상대회는 전남 경제의 자원과 역량을 보여줄 더없이 좋은 기회이므로, 도민과 지역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1,000명의 해외 한상과 국내기업인 5,000명 등 모두 6,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회장 김백규)가 제26회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지난 15일 스톤 마운틴 골프클럽에서 개최했다.



△경기에 앞서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대회에는 경기 참석자 108명과 준비 및 진행위원 7명 등 총 115명이 참가했다. 참가비는 1인당 80불이었으며 개인 스트로크 경기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코카콜라, UPS, 조지아 복권, 펩시 등이 스폰서로 나섰으며 메트로시티 은행, 제일 IC 은행, 프라미스 원 은행, 남대문, 애틀랜타 주류협회, 골프협회, 요식협회 등도 후원했다.

박수목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총 2만 2500불을 모금했다”며 “한인식품협회는 한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의 상생과 교류를 위해 장학금의 50-80%를 이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

▲메달리스트=양병길

▲A조 1등=김종인 2등=김강식 3등=샘 김

▲벤더조 1등=보든 데어리팀(Borden Dairy)

2등=셸우드팀(Sherwood) 3등=Pat Song 외 3명

▲B조 1등=한상기 2등=채병관 3등=권기혁

▲여성조 1등=이진희, 2등=신삼원, 3등=김진숙

▲남성조 근접상=김형률, Wyman Daniel

▲여성조 근접상=홍성민

▲남성조 장타상=이창현, 김세기

▲여성조 장타상=Nikitta Jerrel







## More Restaurants and Cafés Refuse to Accept Cash

We had been aware of cash-free restaurants and cafés, but had never fully grasped the effects of their growing numbers. Afterward, we realized “cashless” coffee shops, cafés, and take-out spots are everywhere. It also struck us that these businesses force people to adopt a way of shopping and living that not everyone wants, and that in doing so they create a gulf between people who can shop at these businesses and people who can’t.

The more I thought about it, the more these businesses began to infuriate me. Are these business owners trying to keep out certain customers? What about children? Or people who are paid in cash, or others who, for whatever reason, can’t or won’t open a bank account (because they are undocumented, for example, or do not have a home or a fixed address)? What about tourists who simply want to avoid bank exchange rates? What about other people who, quite reasonably, don’t love the idea of companies like Apple and Square being able to track their complete purchase histories?

And aren’t the businesses that refuse to accept cash really just sending a not-so-subtle message about the types of customers they want?

“We already have so many forms of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this country,” says Bill Maurer, a UC Irvine professor who also directs the Institute for Money, Technology and Financial Inclusion, “and now we are adding mode of payment to the list — if we start marking belonging by ‘means of payment,’ that’s a big problem.” Maurer, who coordinates research in over 40 countries about the impact of new payment technologies on people’s well-being, encourages everyone to seriously think about the long-term ramifications of a “cashless revolution” — but that doesn’t seem to bother cash-free

advocates too much.

“Cash is our main competitor; I don’t envy being in cash’s position,” a Visa spokesperson told me recently. In summer of 2017, the credit-card company announced a “cashless challenge” that would award a \$10,000 prize to businesses that went completely cash-free. The cashless challenge, the spokesperson explained, was designed to “make it okay to say I am cash free, and hopefully encourage others to come forward, too.”

Simone Falco, the chef and owner of New York’s fast-casual Simò Pizza, which won \$10,000 in the Visa cashless challenge, says that the driving force to go cashless at his businesses was a desire to maintain a tip-free environment. And in his video entry for Visa’s challenge he focuses on business benefits like speed, efficiency, and theft reduction. The consensus among small-business owners is that eliminating cash streamlines operations, makes better use of resources (staff don’t have to waste time doing banking or washing their hands after handling paper money), speeds up wait times for customers, and eliminates the risk of theft, either by third parties or workers.

This is a common line of thinking among cashless owners — “In New York City everybody carries a credit card or a debit card!” Falco proclaims in his Visa video — but the belief that everyone has access to a card likely only applies to these owners’ target audience. According to the latest national survey by the FDIC, about 6.5 percent of American households (which is about 8.4 million) do not have a bank account, and an additional 18.7 percent are what’s called “underbanked,” which means they are more likely to rely on cash day-to-day. In New York state, almost 25 percent of all households — and nearly half of black and Hispanic households — are unbanked or underbanked.

“There’s a slight barrier to entry, which you can’t ignore, and we really wrestled with that,” says Theo Friedman, a co-founder of the shaved-ice company Bonsai Kakigori, which is now cash-free. Friedman concedes, “You’re making a real



socioeconomic statement when you say, 'I only accept cards.' How does the team at Bonsai reconcile this? "Welcome to the world of small business," Friedman says. "Every day you are faced with tons of different decisions and you have to choose a side and move on." He says that when a new stand-alone Bonsai shop opens on the Lower East Side this winter, the team will start out cash-free and see how it goes. "If we have to turn ten people away each day, we will start taking cash, and if it's never an issue, then it's never an issue."

In reality, it can be something of an issue, and cashless businesses have different ways of handling customers who can't or won't pay by card. The ice-cream chain Van Leeuwen went completely cashless last fall. Co-founder Ben Van Leeuwen says that customers who have a problem with it are either tourists who are worried about transaction fees, or people who have cards but are against the business model on principle. Van Leeuwen store manager Henry Molina says that if a customer makes it to the front of their often-long lines without a card, he'll politely explain the policy before ultimately letting the customer have one ice cream on the house. (Molina also says that if a customer has the exact amount of cash he'll take it and swipe his card for them.) The taco and burrito chain Dos Toros went cash-free last year, too, and co-founder Leo Kremer says they train staff to err on the side of generosity. (He also points out that there are also work-arounds. For example, you could always go to a drug store, pay a fee, and buy a prepaid gift card, which feels like a lot of extra work to buy a burrito.) "If we have made someone their food and it turns out they don't have a card," Kremer says, "we'll comp the meal and remind them for next time." He adds, "I think that most people act in good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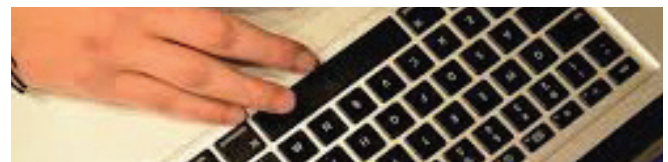
For the most part, it's completely legal for business owners to reject cash. There's no federal statute that says that private businesses have to accept cash, and the only state that mandates businesses must accept cash is Massachusetts.

Fueled by concern about the discrimination that cashless businesses pose, lawmakers have been drafting bills. In Philadelphia, councilman William K. Greenlee and co-sponsor Maria Quinones-Sanchez have submitted one that would stop businesses from refusing to accept cash and amend the city's Fair Practices Ordinance, which provides protections against unlawful discrimination. Greenlee started noticing cashless coffee shops appearing around City Hall, and says they didn't

sit right with him: "Just because you don't have a piece of plastic, you can't get a sandwich? Or a cup of coffee?" He says of cash-free businesse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come to the center of the city and it seems like these places are saying, we don't need your business. That's not a great statement to make." Greenlee also told me that among the 28 percent of Philadelphians who either don't have a bank account or who use financial services from an institution that is not a bank, a significantly higher portion are African-American and Latino. He says the arguments that businesses make for going cashless strike him as "weak," and argues that if your customers use credit cards most of the time, there's no need to ban cash. As far as he's concerned it's basic discrimination: Everyone can access cash, but not everyone can get a card.

Still, some owners say cash simply has no place at their businesses. Amirah Kassem is a co-owner of the bakery Flour Shop. "We created the space so you'd have this whole Disneyland, sprinkles-and-smiles experience when you walk in," she says. "The boring things" — like cash — "don't happen at Flour Shop."

## Google to pay out \$150-200 million over YouTube privacy claims



Google will pay \$150-200 million to settle allegations YouTube violated a children's privacy law while gathering data to better target its adverts, US media reports said last month.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agreed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against YouTube parent Google, which if approved by the Justice Department would be the largest settlement in a case involving children's privacy,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e allegations against YouTube were made by privacy groups who said the platform had violated laws protecting children's privacy by gathering data on users under the age of 13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rom parents, Politico reported.



US regulators have long argued Google fail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content and data collection on its YouTube platform.

The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roposed settlement would be “woefully low” given Google’s size and revenue, and called on the FTC to “enjoin Google from committing further violations” of children’s privacy law.

Google remains the money-making engine for parent company Alphabet, with most of its revenue coming from digital ads, which accounted for \$116 billion of the \$136 billion the Silicon Valley-based company took in last year.

Google remains the money-making engine for parent company Alphabet, with most of its revenue coming from digital ads, which accounted for \$116 billion of the \$136 billion the Silicon Valley-based company took in last year.

In January, France’s CNIL data watchdog slapped Google with a record 50-million-euro fine for failing to meet the EU’s toug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came into force early last year.

## Jet shutdown effect: Traffic growth lowest in 5 years, more trouble for airlines

Domestic air traffic growth in FY20 so far has been the slowest in the past five years. The passenger traffic, which witnessed high double-digit growth since 2014-15, has expanded at just 1.9% year-on-year in the first four months of FY20, largely due to closure of Jet Airways. As per analysts this muted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till at least January next year.

“The low traffic growth in July 2019 is largely on account of lower capacity as Jet remains grounded. Additionally, full ramp-up of sales of Jet tickets, which moved to SpiceJet fleet, will take some time,” analysts at ICICI securities noted.

Aviation consultancy firm CAPA India has projected less than 5% y-o-y growth for the domestic market in FY20. However, airlines executives expect traffic growth to increase during

the festival season. “July-September is a weak quarter for airlines. The July growth was mainly due to less capacity and fares being higher,” said an executive at a low-cost carrier.

Jet commanded 15% of the domestic market share before the full-service carrier shut down due to liquidity crunch on April 17. Since then, SpiceJet and Vistara have inducted more than 40 aircraft which were earlier operated by Jet. The average domestic fares in FY20 are up 8% y-o-y, according to travel booking portal Cleartrip.

Travel industry executives point out that airlines have added more capacities, measured in terms of available seat kilometres (ASKs) on the international routes, which face less competition as compared to domestic sectors. “The passenger traffic growth requires steady increase in capacities by airlines. The traffic was increasing by 19% in 2018 when overall capacities grew at 21%. In this current financial year, the capacity has grown by only 3% y-o-y.

Moreover, the airlines are deploying additional capacities on the lucrative international routes,” Balu Ramachandran, senior vice-president, Cleartrip, explained. While international capacities at IndiGo grew at 90% y-o-y, SpiceJet is adding overseas ASKs at 80%, followed by Go Air, the DGCA data stated.

Indiver Rastogi, president and group head, global business travel, Thomas Cook, however, is positive, saying the airlines have lapped up slots on key domestic routes. “We are seeing robust growth in our bookings. The sentiment for travel is positive and there is good uptake for international destinations. The fares which had shot up in Q1 have come down with airlines taking over Jet’s slots and international flying rights,” Rastogi pointed out.

Since April, SpiceJet has announced 130 additional flights that include 78 flights connecting Mumbai, 20 flights connecting Delhi and 12 flights connecting Mumbai and Delhi. It launched a number of new flights and enhanced frequencies on its international network from key metros to destinations such as Jeddah, Bangkok, Colombo, Hong Kong, Dubai and Dhaka.



# BUSINESS NEWS

## 경제 뉴스

### 경기침체 막아라...아세안 '부양책' 총동원

태국·싱가포르·말레이 등 금리 내리고 재정 대폭 풀어

미·중 무역전쟁 탓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동남아시아 주요국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으로는 경기를 떠받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경제성장에서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달 아세안 주요 국가가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올해 경제성장률 3%를 사수하기 위해 3160억바트(약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농가 보조금 지급 등 방대한 '돈 풀기' 방안이 담겼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경기 악화 때 비상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가 직접 나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정부 주도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신병웅 JP모건체이스 애널리스트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모든 정책 수단이 공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유럽 선진국이나 남미 신

흥국보다 작아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아세안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소재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반사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으로 교역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폭해 기업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국가는 잇달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이 지역 경제 규모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5.3%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태국은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를 3.3~3.8%에서 '3%'로 최근 낮췄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자동차와 컴퓨터 부품 등 대중(對中) 수출이 크게 줄면서 지난 상반기 수출이 10%가량 줄었고 내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최근 6.7%에서 6.4%로 하향 조정했다.





##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문 연 코스트코... 고객 몰려

계산대에 1시간 이상 줄 서고 3시간 주차 대기...  
주변 교통 마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서도 미국의 회원제 할인 마트인 코스트코가 중국상하이(上海)시에서 성공적으로 첫 점포의 문을 열었다.

지난달 8월 28일 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오전 상하이시 민항(閔行)구에 있는 코스트코 중국 1호점이 개장했다.

1호점의 개장 첫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매장 안에 가득 찬 고객들이 곳곳에서 서로 물건을 사겠다고 서로 몸싸움을 벌일 지경이었다. 일부 고객들은 먼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개장 직후 매장의 전동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바닥으로 기어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코스트코의 인기 상품인 구운 통닭에서부터 에르메스·프라다 등 패션 브랜드의 고급 가방에 이르기까지 매대 곳곳에서 상품들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 고객들은 계산대에서 한 시간 이상씩 줄을 서기도 했다.

너무 많은 고객이 몰리면서 코스트코 주변에서도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일대 도로 교통이 마비된 가운데 차를 갖고 온 이들은 코스트코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세 시간 이상씩 기다리기도 했다.



코스트코 측은 문을 연 지 불과 몇시간 만인 오후 1시 무렵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영업을 중단했다.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만 물건을 파는 코스트코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아 세계적으로 성업 중이다. 중국에서 연회비는 299위안(약 5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코스트코의 중국 진출은 최근까지 외국계 유통사들이 속속 중국 사업을 접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양대 라이벌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주도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백화점과 할인마트 같은 전통적인 유통 업체들이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1995년 서양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해 중국에서 200여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까르푸도 지난 5월 중국 가전 유통 업체 쑤닝에 중국 사업 지분 80%를 6억2천만 유로(약 8천200억원)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손을 뗐다.





## 대중국 추가관세로 미국 가구당 年 460달러 부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액이 가구당 연 460달러(약 56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런던칼리지대학의 이코노미스트 키링 보러스야크 교수와 런던정경대(LSE)의 자비에 자라벨은 15% 관세로 인한 미국 가구당 부담액을 위와같이 평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최고부유층 경우 가구당 부담액이 970달러이고 최빈층은 가구당 340달러이다. 여기에는 오는 12월 15일 발효될 관세의 영향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중국 이외에 멕시코, 캐나다, 유럽 산 수입품들에 부



과한 관세로 인한 미국인의 부담은 가구당 연 250달러(약 30만원)로 추정된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관세 등 추가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부담액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1년전 연평균 부담액은 가구당 연 60달러로 추정됐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A Budweiser advertisement. On the right, a condensation-covered bottle of Budweiser beer stands on a dark wooden surface. The bottle's label is clearly visible, showing the 'Budweiser' name and 'KING OF BEERS' tagline. On the left, a large, stylized logo of the Anheuser-Busch company is partially visible, featuring a circular emblem with 'AB' and 'AFRICA', 'AMERICA', and 'ASIA' around it. In the center, white Korean text reads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 (Perfect harmony. Deep and pure taste.). At the bottom left, the Budweiser logo is repeated, followed by the text 'Responsibility Matters' and '© Anheuser-Busch, Inc., Budweiser® Beer, St. Louis, MO'.





**Smooth, I mean really smooth!**

★ [TitosVodka.com](http://TitosVodka.com) ★ Crafted to be savored responsibly. DISTILLED & BOTTLED BY FIFTH GENERATION INC. 40% ALC/VOL © 2019 TITO'S HANDMADE VODKA.



매릴랜드에서 유일하게 게임과 시가를  
즐길수 있는 풀서비스 패티오를 소개합니다

ORCHID  
GAMING | SMOKING | PATIO



welcome to

Live!  
CASINO • HOTEL  
AT ARUNDEL MILLS

Arundel Mills에 위치. 21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책임감있게  
즐기십시오. 웹사이트 [mdgamblinghelp.org](http://mdgamblinghelp.org)나 전화 1-800-GAMBLER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해지고 싶다면 5가지 색깔과 5가지 맛을 즐겨라

### ■ 오색(五色)주의를 권한다

오색(五色)이란 음식의 빛깔 즉,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매일 빠짐없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예를 들어 검은색은 흑미, 톳, 목이버섯, 표고버섯, 해초, 가지 등이 있다.

약선요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이 검은 닭인 오골계도 검은색 음식이며 피단도 이에 속한다. 피단은 오리알을 석회가 함유된 진흙과 왕겨에 넣어 저장한 것으로 노른자는 까맣고 흰자는 갈색이다. 이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색을 보면 된다.

빨간색은 토마토, 고추, 홍피망, 구기자 열매 등이 있다. 형형색색의 그림과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자. 샤갈이나 칸딘스키가 무색해질 정도의 색채가 접시에 올랐다면 건강한 식사라는 증거로 중화요리의 야키소바가 좋은 예다. 최근 식품영양학 분야에서도 색이 선명한 음식에는 여러 가지 면역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화려한 색상주의가 침투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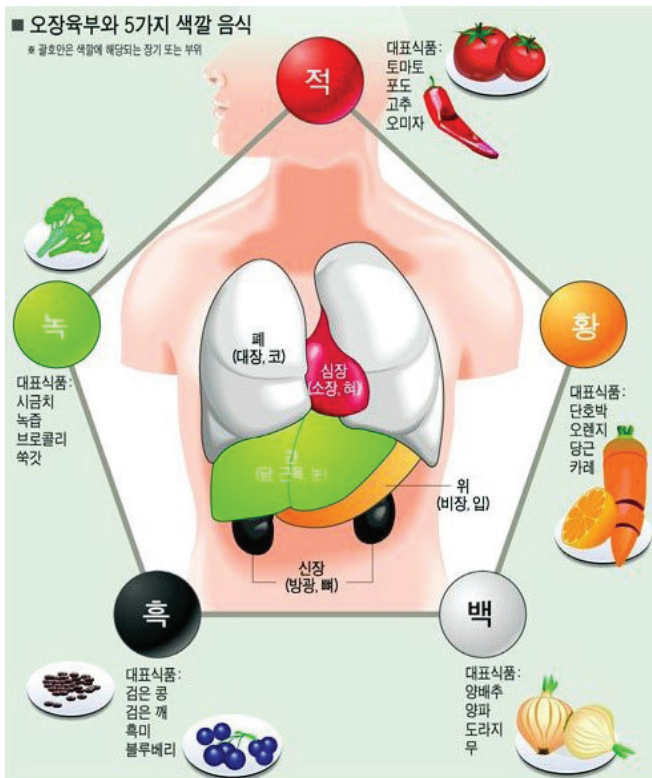
### ■ 맛도 오미(五味)주의가 좋다



맛도 오미(五味)를 권한다. 매운맛,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등 5가지 맛을 균형있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

5가지 맛에는 각각 그에 맞는 5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매실장아찌의 신맛은 소화액을 분비해 주어 간장에 좋다. 파와 같은 매운맛은 허파에 좋고, 다시마, 쓴 오이, 샐러리 등의 쓴맛은 심장에 효과적이며 과일의 단맛은 비장에 좋다. 다시마와 소금 같은 짠맛은 콩팥에 좋다.

그리고 조리도 마무리한다. 매일 볶음이나 튀김만 먹지 말고 삶거나 구이, 찜, 절임 등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요



△ 오장육부와 5가지 색깔 음식

리를 하자. 즉 조리법이 다양하고 색상이 화려할수록 건강음식이다.

## ■ 오장육부와 5가지 색깔 음식

한의학적으로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행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의 오색(五色)은 각각 오행인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에 배속된다. 빨간색은 오행 중 화(火)에 해당하며 우리 인체에서 심장(心臟)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토마토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은 항암 효과, 면역력 증가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사과의 캠페롤, 포도의 폴리페놀, 붉은 고추의 캡사이신 등은 항암 효과가 있다. 그 밖에 딸기, 감, 자몽, 대추, 구기자, 오미자, 적포도주, 석류 등이 있다.

노란색은 오행 중 토(土)에 해당하여 모든 생명력의 바

탕으로 본다. 고구마나 당근같이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노란색 음식은 몸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세포를 유지시켜 주므로 건강의 밑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소화력 증진에 좋으며, 단호박은 죽이나 찜으로 먹으면 위장 기능을 높인다. 황적색 색소에 많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혈당강하, 노화방지 효과도 있다. 감귤, 오렌지, 망고 등은 비타민 C의 보고다. 카레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

흰색은 오행 중 금(金)에 해당되며 인체의 방어막을 의미한다. 흰색 음식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 유해물질을 체외로 방출시키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항알레르기, 항염증 기능이 탁월하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고혈압을 예방하며, 양배추의 설포라페인 등은 항암 효과가 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기침에 좋다. 그 밖에 마늘, 무, 배, 연근, 양파, 양배추, 인삼 등이 있다.

검은색은 오행 중 수(水)에 해당하며 우리 몸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노화와 가장 연관이 깊다. 조혈, 발육, 생식 등을 관장하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검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검은콩, 흑미, 깨 등에 풍부하며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 밖에 목이버섯, 김, 오골계, 흑염소, 블루베리 등이 있다.

녹색 (또는 파란색)은 오행 중 목(木)에 해당하며 봄의 기운을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고, 뻗어나가는 새싹의 모습처럼 뭉쳐 있는 것을 풀어지게 한다. 싱싱한 샐러드나 녹즙 등 녹색식품은 간기능을 도와주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 푸른 잎의 엽록소인 클로로필은 조혈작용을 도와 빈혈예방에도 좋다. 올리브유의 녹색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가 서로 상승효과를 낸다. 썩지, 케일, 시래기, 녹차, 브로콜리, 부추, 깻잎 등이 있다.



New 100 years with Hansang!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9.10. **22**(화) \_ **24**(목) 여수세계박람회장



# KAGRO International 지역협회

KAGRO International	회장 이사장	이요섭 송기봉	Lee, Yo Sup Song, Ki Bong
Arkansas	회장 이사장	이창현 이창호	Lee, Chang Heon Lee, Chang Ho
Arizona	회장	최인준	Choe, Calvin
Southern California	회장 이사장	이상용 박재현	Lee, John Sang Park, Jay
Central California	회장 이사장	장종희 지대현	Chang, Jong Hee Chi, Day Hyun
Chicago	회장 이사장	김세기 김창석	Kim, Se Gi Kim, Chang Suk
Colorado	회장 이사장	윤진기 임광익	Yun, Chin Ki Lim, Kwang Ik
Dallas	회장	이상근	Lee, Sang Kun
Delaware	회장 이사장	송영석 최기철	Song, Mike Choi, Ki Chul
Georgia	회장 이사장	김백규 김훈철	Kim, Baik Kyu Kim, Hoon Cheol
Harrisburg, PA	회장 이사장	조종진 나광열	Cho, Chong Na, Kwang Yol

Hawaii	회장	안경일	Ahn, Kyung Il
Maryland	회장 이사장	장마리오	Chang, Mario
New York	회장 이사장	박광민 박홍규	Park, Kwangmin Park, Hong kyu
Northern California	회장	김복기	Kim, Bok Ki
Oregon	회장 이사장	정종환 이정수	Chong Hwan Sullivan Lee, Jung Soo
Philadelphia	회장 이사장	이승수 송기양	Lee, Seoung Soo Song, Ki Yang
Tennessee	회장	박정식	Park, Jung Sik
Virginia	회장 이사장	김윤옥 이봉순	Kim, Yun Ok Nelson Yi, Pong Sun
Washington D.C	회장 이사장	민경득 유홍규	Min, Kyung Deuk Yoo, John
Washington	회장 이사장	이기복 이종훈	Lee, Ki Bok Lee, Chong Hun
Manitoba, Canada	회장 이사장	김익주 이관주	Gim, Ikjoo Lee, Kwan Ju

## 스폰서

Miller Brewing Company / Anheuser Bush Inc /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 Inc / PEPSICO / KT&G USA  
Maryland Live! Casino & Hotel / Eagle Bank / Tito's Vodka





# PEPSICO



Tropicana







**THE ORIGINAL  
LIGHT PILSNER.**

**#ITSMILLERTIME**